

2019년 3/4분기

재료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이슈리포트 (ISSUE REPORT)

■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철강업계 교대제 개편 변화와 업계 대응방안



재료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
Material Industrial Skills Council

●●● 목 차 ●●●

■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철강업계 교대제 개편 변화와 업계 대응방안

I. 보고서 요약(Executive Summary)	2
II. 개요	3
III. 철강업계 교대제 현황	5
IV. 타 산업 동향 및 해외 사례	7
V. 결론 및 시사점	11
※ [별첨1] 설문조사 자료	13
※ [별첨2] 노동시간 단축 관련 인건비 지원 등 정부지원제도	14

- 본 보고서는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의 고유기능으로 재료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작성하였습니다.
- 보고서에서 활용한 데이터는 조사시점과 기준이 서로 다른 국가 승인통계 및 민간통계 자료로 개별 통계표나 차트 등을 인용할 경우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료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 : 이민우 과장(02-559-3533, minwoo.lee@ekosa.or.kr)

I

보고서 요약(Executive Summary)

- 철강산업은 24시간 공장가동으로 장시간 근무교대제가 많아 최근 근로시간 단축 법개정에 대응해 근로시간 단축형 교대제 개편 필요
- (교대제 현황) 협회 회원사 총 근로자수(사내하도급 포함)는 75.2천명으로 교대제 참여 근로자수는 전체의 50.4%인 37.9천명 수준
- (교대 형태별 현황) 4조3교대가 정규직과 사내하도급에서 각각 46.1%, 51.0%로 높은 비중을 차지
- (300인 기준 교대제 비교) 300인 미만 사업장은 24시간 연속 근로 형태의 업체가 아닌 곳이 많아 300인 이상 사업장에 비해 2조2교대, 3조3교대 형태의 비율이 높으며, 300인 이상 사업장은 4조3교대 근로자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조사
- 타 산업 동향
 - (건설업계) 정부의 근로제도에 맞춰가고 있으나 외부 영향에 취약하여 지난 7월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 보완대책의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
 - (자동차업계) 지난해부터 생산직을 대상으로 주간 연속 2교대 근무를 시행 중. 기존 주야 2교대로 진행하던 것을 주간 8시간씩 2교대로 개편
 - (정유·화학업계) 업계 최초로 에쓰오일이 ‘19년도 6월 ‘4조2교대’ 근무형태를 시범 도입 시범 실시, 실시기간 종료 후 노조의 찬반 투표로 확정
- 해외 사례
 - (해외 근로시간 현황 및 비교) 주 52시간 근로시간 개편으로 연간 근로시간이 해외 주요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단축되었으나 아직까지는 다른 선진국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
 - * '18년 2월 독일 금속산업 노사는 주 28~40시간 근무제 도입 단체협약 체결
- 교대제 개편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해 교대제 전환비용 부담 최소화를 위한 정부 정책 지원방안 확대·개선이 필요하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홍보 강화 필요

II | 개 요

- (배경) 철강산업은 24시간 공장 가동으로 장시간 근무형 교대제가 많은데, 최근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개정 움직임에 대응해 근로시간 단축형 교대제 개편 필요성 제기
- 최근 근로시간 단축 전 철강산업을 포함한 1차 금속 제조업의 근로시간은 전체 산업 평균 대비 19시간, 제조업종 대비 6시간이나 많고, 금속가공 제조업 또한 전체 산업 평균 대비 약 17시간 많음
 - 철강산업의 장시간 근로체제는 근로기준법에서 허용하는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도 많아, 2016년 상반기 고용부의 자동차·금속 등 2~3차 협력업체 총 100개소 대상으로 한 장시간 근로 수시 감독 결과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종의 64.1%로 가장 많음

[표1] 2016년 상반기 장시간 근로 수시감독 결과

업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	금속가공제품 제조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	섬유제품 제조	기타 제품 제조
감독대상	43	39	11	3	2	1
위반업체 (비율)	18 (41.9%)	25 (64.1%)	4 (36.4%)	1 (33.3%)	0 (0%)	1 (100%)

* 자료 : 고용노동부, 2016년 상반기 장시간 근로 수시감독 결과, 보도자료, 2016.

- 철강산업에서 근로시간 단축형 교대제로 개편할 경우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근로시간 단축형 교대제 개편 시 생산 차질 및 인건비 증가와 근로자의 임금조정 등 노사가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음
 - 이에 철강산업의 교대제 개편 현황 및 실태조사를 통해 일자리 창출방안, 정부의 지원방안 도출 필요
- (목표) 이슈 리포트 발간을 통한 철강업계 교대제 개편 현황 및 대응 방안 제시
- (조사방법) 실태조사 설문지를 철강협회 회원사 대상으로 이메일 송신 후 이메일 및 팩스로 회신, 유선 질문을 통해 작성 병행

- 철강산업 교대제 개편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 및 고용효과 실태조사 대상은 철강협회 회원사(41개사) 대상으로 9월 2일부터 9월 17일까지 조사하여 36개 사업장이 조사에 응답
- 기업(원청) 조사 시 해당 기업에 소속된 사내하청 기업을 함께 조사(대기업 1개당 2~5개 사내하청 기업)

※ 교대근무, 교대제의 개념

-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교대근무(shift work)는 노동시간을 조직화하는 한 방식으로,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시간을 서로 이어서 일을 함으로써 개별 노동자들의 노동시간보다 사업체가 더 긴 시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규정

* 예) 동종직무의 직원A (8시간) + 직원B (8시간) = 사업체 (16시간)

[표2] 교대제 분류표

구분 기준	고정성	심야조업	24시간 조업	주말 조업	근무형태
교대제 구분	순환형	심야교대	전일교대	연속조업 교대	2교대 (3조/4조/기타)
					3교대 (3조/4조/5조/기타)
				기타(1주야교대/기타)	
		주말조업 중단교대	2교대/3교대/기타		
	고정형	비심야교대	심야 정시교대	2조2교대	
			주간연속교대(2교대)		
		야근근무전업(2교대)			
		저녁근무전업(2교대)			

* 철강업종 교대제 개선을 위한 쟁점과 과제연구, 금속노조, 2014.

III 철강업계 교대제 현황

□ (교대제 현황) 협회 회원사 총 근로자수(사내하도급 포함)는 75.2천명으로 교대제 참여 근로자수는 전체의 51.1%인 38.5천명 수준

[표3] 철강업계 교대 및 비교대제 근로 현황

(단위: 명, %)

구분	총		교대 조		비교대 조	
	근로자	비중	근로자	비중	근로자	비중
정규직	42,462	56.5	20,189	52.5	22,273	60.6
사내하도급	32,756	43.5	18,268	47.5	14,488	39.4
합 계	75,218	100.0	38,457	100.0	36,761	100.0

* 자료 : 한국철강협회 회원사(36개사) 대상 조사, 2019. 9.

□ (교대 형태별 현황) 4조3교대가 정규직과 사내하도급에서 각각 46.1%, 51.0%로 높은 비중을 차지

- 정규직 교대별 참여수 : 4조3교대(9.3천명), 4조2교대(7.2천명), 2조2교대(2천명) 순
- 사내하도급 교대별 참여수 : 4조3교대(9.3천명), 4조2교대(4.2천명), 3조3교대(1.8천명) 순

□ (단축형 교대제 대상) 근무시간 단축형 교대제(24시간 가동업체 중 3조3교대)가 필요한 인원은 총 근로자의 3.6%에 해당하는 2.7천명 수준('17년 조사 시 5.3%, 4,106명)

- 3조3교대 교대 참여 수 : 0.9천명(정규직), 1.7천명(사내하도급)
- '17년 대비 3조3교대 근로자 1.4천명 축소(교대제 개편 영향으로 추정)

[표4] 철강업계 교대제 현황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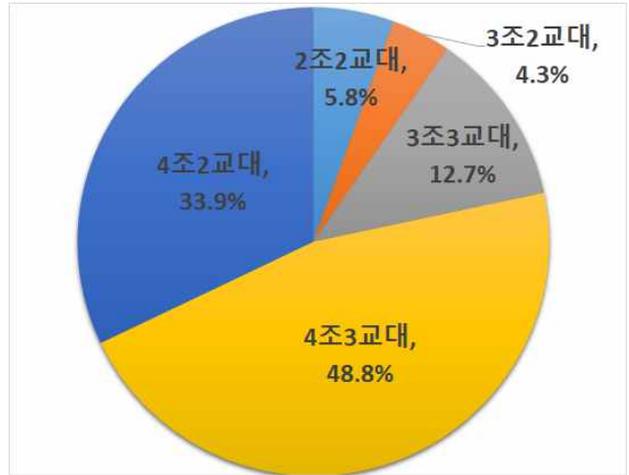
구분	본사 근로자						사내 하도급						총 교대조 (a+b)
	총 교대조 (a)	2조 2교대	3조 2교대	3조 3교대	4조 3교대	4조 2교대	총 교대조 (b)	2조 2교대	3조 2교대	3조 3교대	4조 3교대	4조 2교대	
철강 36개사	20,189	1,973	828	929	9,302	7,157	18,268	1,811	1,126	1,760	9,324	4,247	38,457

* 자료 : 한국철강협회 회원사(36개사) 대상 조사, 2019.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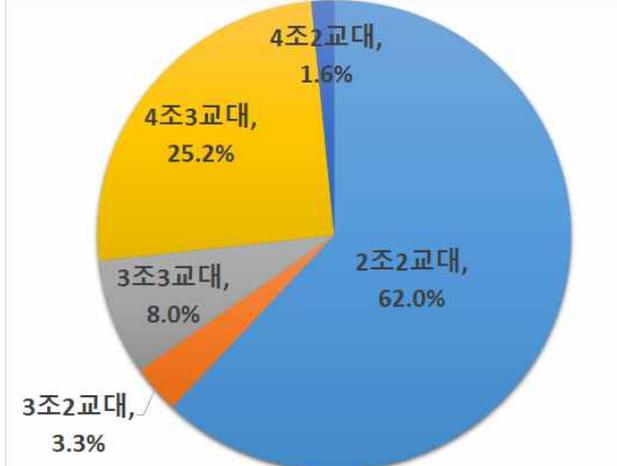
[그림1] `17년도 철강업체(300인 미만 20개사) 교대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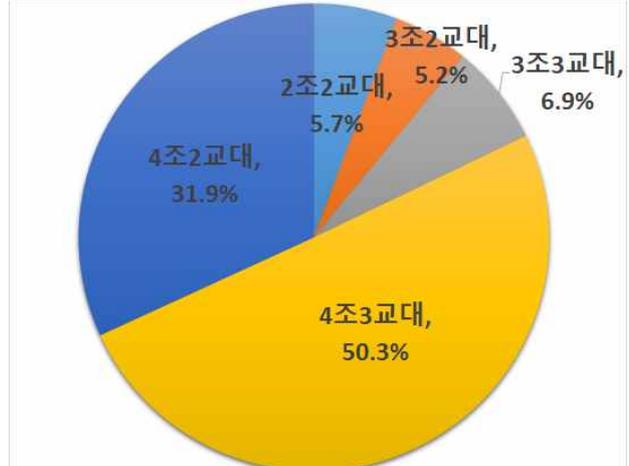
[그림2] `17년도 철강업체(300인 이상 15개사) 교대제 현황



[그림3] `19년도 철강업체(300인 미만 20개사) 교대제 현황



[그림4] `19년도 철강업체(300인 이상 16개사) 교대제 현황



* 자료 : 한국철강협회 회원사(36개사) 대상 조사, 2019. 9.

□ (300인 기준 교대제 비교) 300인 미만 사업장은 24시간 연속 근로 형태의 업체가 아닌 곳이 많아 300인 이상 사업장에 비해 2조2교대, 3조3교대 형태의 비율이 높으며, 300인 이상 사업장은 4조3교대 근로자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조사

- 2조2교대, 3조3교대가 '17년도 대비 축소되었고, 4조3교대가 증가 폭이 큰 것으로 볼 때 주 52시간 근로시간 축소에 따른 교대제 개편으로 추정

□ 교대제 개편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창출 관련 업계 의견

- (교대제 개편 추진 현황) 지난 2년간 교대제 개편을 추진한 기업 8개사, 추진하지 않은 기업 22개사

- (교대제 개편 사유) 지난 2년간 교대제 개편을 추진한 8개사 중 6개사는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 관련 대응방안으로 개편, 2개사는 생산물량 감소에 따른 가동시간 축소로 개편 진행
- (교대제 개편 계획) 4조3교대 및 4조2교대 도입(36개사 중 17개사)으로 교대제 개편 추진이 불필요하다는 의견(13개사)
 - 경영상황 악화로 추진 어려움(5개사), 정부지원 추가시 추진 검토(3개사)
- (신규 인력 채용) 교대제 개편 시, 신규인력 채용은 최대한 줄이고 교대제를 준비하겠다는 의견(8개사)이 가장 많음
 - 추가채용 없이 노동강도를 높여 운영(3개사), 교대제 인원만큼 채용(2개사)
- (개편시 우려사항) 인건비 비중 부담 증가(12개사)
 - 근로자들의 임금 감소 반대(8개사), 임금 조정과정에서 노사갈등(7개사)
- (정부 지원 사항) 신규 인력 채용시 정부측 고용보조금 지급 등 인센티브 지원 필요(9개사)
 -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로시간 한도적용 제외(8개사), 설비도입시 설치비 지원(5개사) 요청

□ 철강산업 교대제 개편으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

- 교대제 개편으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는 단순 이론적인 수치로는 짐작¹⁾해 볼 수 있으나 업체에서의 인력증원 최소화를 위한 교대조의 작업범위 확대 및 자동화 설비 신설 등으로 실제 고용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

IV 타 산업 동향 및 해외 사례

□ 타 산업 동향

○ 건설업계

- 건설업계는 정부 방침에 따라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줄이고 휴식을 늘리는 방식으로 근무체계를 개편. 이를 위해 탄력근무제와 교대근무 등을 도입하고, 현장은 추가 근로 시간에 따른 휴가를 늘리고 있음

1) 이론상 교대제 개편 시 신규 고용창출 효과 최소 600~5,400명으로 추정, 2017 고용영향평가, 2017

- 하지만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인 건설업은 대부분 옥외작업이 많아 날씨 등의 영향이 크고, 여러 업체의 협업 때문에 근로시간에 따른 영향이 매우 크며, 해외현장은 국내현장보다 돌발변수가 많이 발생
- 이에 건설협회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1년 확대 및 사용요건 완화 및 해외 건설현장 근로시간 단축 적용 제외 등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 보완대책의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19. 7)

○ 자동차업계

- 현대차·기아차는 지난해부터 생산직을 대상으로 주간 연속 2교대 근무를 시행 중. 기존 주야 2교대로 진행하던 것을 주간에 8시간씩 2교대로 개편. 특근도 토요일에 최장 8시간만 허용해 한 주에 48시간 이상 근무 불가
- 르노삼성자동차, 한국GM은 주간 8시간 근무제를 이미 선제적 시행
- 하지만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자동차업계의 가장 큰 문제는 생산량 감소 우려로 업종의 특성상 계절적 수요나 통상 리스크 등 여러 요인에 따른 생산량 변화에 대응하고 있음
- 신차의 경우 주문량에 따라 평균 2배 이상으로 생산량이 늘어나는 상황이 많아 기존엔 주당 60시간을 넘겨 일하던 경우가 있어 상황에 따른 탄력적 근무가 필요

○ 정유·화학업계

- 정유·화학 업계 최초로 에쓰오일이 ‘19년도 ‘4조2교대’ 근무형태를 시범 도입. 도입 시 기존 근무 형태보다 휴무일은 80일 이상 늘어남
- 개시 날짜(2019. 6) 이후 에쓰오일은 6개월간 4조 2교대 근무를 시범 실시하며, 시범 실시기간 종료 후 노조는 찬반 투표를 통해 해당 근무형태를 확정하기로 함
- 에쓰오일의 테스트를 관련 업계가 모두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제도마다 장단점이 있는 만큼 향후 결과를 본 뒤 각사가 방향을 정할 예정

□ 해외 사례

- (해외 근로시간 현황 및 비교) 주 52시간 근로시간 개편으로 연간 근로시간

이 해외 주요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단축되었으나 아직까지는 다른 선진국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

- 대부분 법정근로시간 주 50시간 미만이며, 사정이 비슷한 일본도 연장 근무가 4주 43시간으로 한정되어 실질적 연장 근무는 우리나라보다 적은 수준

[표5] 주요국 근로시간 현황

국가명	기본	최대연장 근로시간	비고
한국	주 40시간	주 12시간	기업 규모별 차등 적용
미국	주 40시간	제한 없음	각 주마다 차이가 있음
일본	주 40시간	주 15시간	연장 근로시간 4주 43시간, 1년 360시간으로 제한
독일	주 48시간	24주당 10시간	월~토 기준, 실질적 주 최대 48시간
영국	주 48시간	불가	17주 기준 주당 평균 48시간 이상 근로 불가
프랑스	주 35시간	주 13시간	하루 최대 10시간, 12주 기준 주당 평균 44시간 이상 불가

* 자료 : 주 52시간..선진국과 비교하면 그래도 길다, 머니투데이(Lexology 자료인용), 2018. 6.

- (독일 금속산업 근로시간) '18년 2월 독일 금속산업 노사는 주 28시간 근무제 도입 단체협약 체결. 주 28시간에서 길게는 40시간까지 노동시간을 근로자가 조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 보장
 - 다만,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임금하락분은 근로자가 받아들이는 형태로 최근 일·생활 양립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나타난 가치관 변화 수용한 결과로 해석됨

[표6] 독일 금속산업 근로시간 단축과정

시기구분	주요특징	
	1주당 근로시간(협약발효일)	조정기간
1967년	40시간	·
1984년	38.5시간(84.4.1)	2개월
1987년	37.5시간(88.4.1) / 37시간(89.4.1)	6개월
1990년	36시간(93.4.1)	6개월
1995년	35시간(95.10.1)	12개월
2018년	28~40시간 선택제	·

* 자료: 해외자동차산업의 근로시간 단축과 시사점, 고려대 박지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2. 3.

- 일본의 제조 대기업 연간 총 실노동시간은 약 2,000시간 정도로 한국의 주 52시간 논의가 있기 전 '16년도 기준 제조업 실노동시간인 2,196시간(월평균 183.1시간)과 비교해 보았을 때 약 200시간정도 많은 편
- '19년 6월 제조업 기준 연 2,032시간(월 169.4시간)으로 근접한 수준까지 접근한 것으로 조사됨

[표7] 일본 제조 대기업 잔업상한시간과 노동시간

(단위: 시간)

	36협정 ²⁾ 특별조항		연간 총 실노동시간
	월상한	연간상한	
도요타자동차	80	720	1,950.3
닛산자동차	80	540	2,008.0
마쯔다	80	750	2,075.2
미쓰비시자동차공업	80	720	2,108.7
히타치제작소	150		2,096.8
도시바	120	960	2,094.6
후지쓰	100	720	1,953.1
미쓰비시전기	105		2,159.6
NEC		960	1,928.0
신일철주금	80	750	2,093.5
JFE스틸	100	840	2,058.7
미쓰비시중공	(3개월 240)	720	2,131.4
가와사키중공업	80	540	2,070.3
이시카와지마중공업	200	800	2,052.8
스미토모중공업	140	720	2,073.6
미쯔이조선	100	700	2,099.2

* 자료 : 15年製造大企業 労働時間 年2000時間, しんぶん赤旗, 金属労協, 2017. 2.

** 자료: 한국의 월 평균 근로시간, e-나라지표, 2019. 6.

2) '노동기준법' 제36조에 의한 노사협정

V

결론 및 시사점

□ 교대제 개편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 확대

- 교대제 개편 추진 시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고용보조금 지급 등 인센티브 지원 필요(30.0%), 교대제 개편 시 우려사항으로 인건비 비중 부담 증가(40.0%) 의견 비중이 가장 높았음
- 신규 인력 채용과 관련된 조사에서 신규인력 채용은 최대한 줄이거나 추가채용 없이 노동 강도를 높여 운영하겠다는 의견(36.7%)이 가장 많고, 기타의견으로 추가채용 없이 설비자동화를 추진하겠다는 등 교대제 전환비용 부담 최소화를 위한 정책 지원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근로시간 단축형 교대제 개편이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대제 전환비용 부담 최소화를 위해 지원금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 필요
 - * 대기기업의 경우 현행 480만원(월 최대 40만원) 지원을 중소기업과 유사한 960만원(월 최대 80만원)까지 올리고, 지원기간(현행 1년)도 확대 검토 필요

□ 근로시간 단축 관련 정부 지원 사업 홍보 강화

- 정부는 교대제 개편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과 고용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질적 지원금이 크지 않아서, 혹은 몰라서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은 업체도 있는 것으로 추정
 - 교대제 개편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 및 고용창출 지원 사업인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위해 중소 철강업체, 특히 하도급 업체가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홍보 강화 필요

□ 교대제 개편 및 기업 노사 대상 전문 컨설팅 지원

- 정부가 투자하고 있는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의 실질적 효용성을 위해 철강산업 근로시간 단축형 교대제 개편 사례 홍보와 노사관계 전문가들이 기업 노사 대상의 컨설팅 지원 필요
 - 기업 사정에 맞는 근로시간 단축형 교대제 개편을 위해서는 근로시간, 휴일 조정 임금조정 및 교대근무조 개편, 임금체계 개편, 인력증원과 재배치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과 해법 필요

※[별첨1] 설문조사 자료

※[별첨1/설문지] 철강업계 교대제 실태 조사

○ 본 조사는 고용노동부 산업인력공단 신화 제로조선업인적지원개발위원회에서 철강업계 교대제 실태에 대해 조사하고 업계의 애로 및 건의 내용을 수렴하기 위해 조사하는 것입니다.
 ○ 응답한 내용은 조사 목적을 위해 통계자료로만 사용되며, 개별기업 단위의 자료로 활용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설문내용에 따라 빈칸을 작성하시어 9월 4일(수요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철강협회 인적지원실

1. 귀사는 지난 2년간 교대제 개편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까?

- 1) 있음 (1-2포)
- 2) 없음 (2포)

1-2. 교대제 개편의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 관련 대응방안으로의 개편
- 2) 장시간 근무로 인한 효율성 악화로 인한 개편
- 3) 노조 측의 요구로 인한 개편
- 4) 기타 _____

2. 교대제 현황

구분	직영(정규직+기간제 근로자)	사내협력사
장주근로자	명	명
2조2교대	명	명
3조2교대	명	명
3조3교대	명	명
4조3교대	명	명
4조2교대	명	명
총 근로자	명	명

3. 귀사는 향후 근로시간 단축형 교대제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 1) 현재 4조 3교대(4조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어 추진 불필요
- 2)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있다면 추진 검토
- 3) 경영 상황이 어려워 추진이 어려움
- 4) 기타 _____

4. 교대제 개편 시 신규 인력 채용(계획)은?

- 1) 추가 채용없이 노동 강도를 높여 운영
- 2) 교대제 인원 만큼 인원을 신규 채용
- 3) 최대한 인원 채용은 줄이고, 교대제 대비
- 4) 기타(교대제 계획없음 등) _____

5. 귀사에서 근로시간 단축형 교대제 개편을 추진하려 할때 가장 우려되는 점은?

- 1) 추가인력 채용으로 인건비 부담 가중
- 2)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가동을 저하로 인한 생산 차질
- 3) 근로자들의 임금감소로 인한 반대
- 4) 교대제 개편에 따른 설비투자 확충 부담
- 5) 교대제, 임금조정 등 협의 과정에서 노사갈등
- 6) 기타 _____

6. 귀사에서 교대제 개편을 추진하려할 때 필요한 정부 지원은 무엇입니까?

- 1) 교대제 개편으로 신규 인력 채용 시 고용지원금 지급 및 확대
- 2) 생산성 제고를 위한 자동화 라인 도입 시 비용 지원
- 3) 교대제 운영방식 및 작업장 혁신 컨설팅 지원
- 4) 근로기준법상 초과 근로시간 한도 적용 제외 등 근로감독 유예
- 5) 주 52시간제 유예기간 연장
- 6) 기타 _____

※[별첨2] 노동시간 단축 관련 인건비 지원 등 정부지원제도

지원대책	세부내용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1유형	(요건)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초과근로시간 단축) 등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하고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 가한 사업주 (지원) 임금 80% 한도로,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대 규모기업 월 40만원(1년, 제조업 우선지원대상·중견기업은 2년 지원)
	2유형	(요건)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 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지원) 임금 80% 한도로, 1인당 월 40~100만원, 1~3년 지원
기존 근로자 임금보전 지원	1유형	(요건)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초과근로시간 단축) 등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하고 실업자를 신규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 하고 임금감소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한 사업주 (지원) 증가 근로자 지원인원 1인당, 임금감소 근로자 10명까지 우선지 원대상기업(1년, 제조업 2년) 및 중견기업(1년)에 월 40만원까지 지원
	2유형	(요건)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 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하고 임금감소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한 사업주 (지원) 증가 근로자 지원인원 1인당, 임금감소 근로자 10명(노선버스 20명)까지 월 40만원까지 지원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요건) 청년(만 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기업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 5인 이상 중소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지원)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월 75만원) 지급, 최초 지원 대상 청년 채용한 날부터 기업당 3년간 지원	
신중년적합 직무 고용 지원	(요건)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 (지원) 임금의 80% 내에서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월 40만원(1년)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요건) 근무체계 개편, 시간선택제 직무개발 등을 통해 실업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신규 고용한 사업주 (지원) 기업규모 관계없이 임금의 80% 한도로 인건비 월 60만원, 우선지원대 상기업·중견기업에는 간접노무비 월 10만원 지원(1년)	

* 자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52-hour.do>)

** 더 자세한 사항(설비투자비, 근무체계 개편 무료컨설팅 등)은 고용노동부 해당 페이지에 상세히 기술



사용 자료 출처

[문헌]

- 철강산업 24시간 연속공정에서 교대제 개편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창출, 한국노동연구원, 2017. 12.
-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 가이드북, 고용노동부, 2018. 6
- 교대제 운영실태 조사 및 교대제 개편 촉진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2011. 11.
- 철강업종 교대제 개선을 위한 쟁점과 과제 연구, 전국금속노동조합, 2014. 9.
- 해외자동차산업의 근로시간 단축과 시사점, 고려대 박지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2. 3.
- 실근로시간 단축 관련 외국사례 및 개선방안 연구, (사)한국노사관계학회 성균관대학교 HRD센터, 2010. 10.
- 산업고용실천 전략 검토 의견(철강산업), 한국철강협회, 2017. 6.

[홈페이지]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실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정책자료실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
- 월평균 근로일수, 근로시간, 임금총액, e-나라지표.

[언론사]

- 주 52시간..선진국과 비교하면 그래도 길다, 머니투데이(Lexology 자료인용), 2018. 6.
- [선진국의 근로시간 현황은] 유럽의 주 30시간 “하루 8시간도 길다”, 중앙일보, 2018. 6.
- 해외 근로시간 단축 어떻게, 서울신문, 2018. 2.
- 美·日 고소득 사무직, 근로시간 규제 없어…獨·佛은 초과시간 저축, 한국경제, 2019, 6.
- 근로시간 단축, 한국과 너무 다른 일본, 한국경제, 2018, 4.
- 15年製造大企業 労働時間 年2000時間, しんぶん赤旗, 金屬勞協, 2017. 2.
- [주 52시간 시대] 자동차, 연속 2교대 시행 중...특근수당 줄어 반발, 한국경제, 2018. 6.
- [단독]에쓰오일, 일년에 절반 쉰다...4조2교대 근무형태 전환 추진, 한국경제, 2018. 12
- 에쓰오일, 정유사 첫 '4조2교대' 시작, 한국경제, 2019. 5.
- 건설업계가 52시간 근로제 대응 방법...“근무 줄이고, 휴식 늘리고”, 조선비즈. 2018. 6.
- 주 52시간 적용 반발... 건설업계 절박함 ‘호소’, 한국건설신문. 2019. 7.